



불한당

최영재

나는 군복무를 소방서에서 했다. 2년간 의무소방대원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현장에 출동했다. 뜨거운 불과 하루 종일 싸우고 시커먼 검댕을 뒤집어쓴 채 선·후임들과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손에 잡힐 듯한 소중한 추억이다. 동료와 합심하여 밤새워 남을 도운 느낌은 나란 존재가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어 오르는 벅찬 감정이었다. 이렇게 멋진 직업이 또 있을까 싶었다.

그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동경이 커지면서, 어느새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당시 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잘 다녔다며 소방공무원이 되는 것을 간곡히 반대하셨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었고, 운이 좋게 시험에 합격하여 소방관이 되었다. 그리고 소방학교를 수료한 후 첫 발령을 받게 되었다. 화재진압대원이 아닌 구급대원으로.

군복무를 할 때도 보조구급대원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구급대원의 일이 커다란 소방차를 모는 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명과 가정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로 인해 많은 심적 부담을 느꼈다. 밤새 출동 신고가 많아 신체적 부담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구급대원 선배들이 구급을 그만두고 보직 변경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하지만 화재진압이든 구급이든 생명을 구하는 일임은 마찬가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신입 소방관의 패기로 구급 업무에 임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하루 출동 중 80% 이상이 비응급환자들이었다. 구급차를 공짜 택시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을지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한겨울 새벽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구급차를 불러 우리와 실랑이할 때는 '내가 이러려고 소방관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들었다. 새벽에 취객들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견디며 잠 못 자는 밤이 늘어나니 생활 리듬이 깨져 두통을 항상 달고 살았고 위궤양도 걸렸다. 비번 날에도 머리에 먹구름이 잔뜩 낀 듯 정신이 몽롱했다.

어느 날 새벽 2시, 출동 벨 소리에 눈을 떴다. " 짹짹, 구급 출동. 구급 출동. 위치는 OO교차로 서편.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고 함. 주취자(술에 취한 사람) 예상됨." 주취자라는 말에 한숨이 나왔지만, 만에 하나 위급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구급차를 타고 출동했다. 도착하니 50대로 보이는 옷차림이 심히 남루한 아저씨 한 분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 술과 담배에 찌든 냄새가 멀리서도 심하게 났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알코올중독 전문병원에서 나를 오늘 아침에 강제로 퇴원시켰는데 다시 들어가야 해. 병원까지 좀 태워줘"

선배가 분노를 참으며 이를 뿌드득 가는 것이 얼굴에 보였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퇴원한 날 아침부터 술집을 옮겨가며 폭음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금을 술값으로 하루 만에 모조리 탕진하자 갈 곳이 없어 다시 병원에 가겠다고 구급차를 부른 것이었다. 여러 번 겪은 일이라 이성적으로 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참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다.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 논의하기 위해 상황실에 전화해 보니, 낮에도 두어 번 구급대를 불러 여기저기 옮겨 다닌 상태라고 했다. 받아줄 병원도 없다고 했다. 참다못한 선배가 말했다.

"아저씨. 이렇게 불필요하게 119 부르시면 정작 필요한 위급환자들이 구급차를 못 탄다고요."

"아니. 이 이놈들아. 국민 혈세를 받아먹는 철밥통 불한당들이 무슨 소리아. 국민신문고에 신고 당해볼래?"

'국민 혈세 받아먹는 철밥통' 이 말을 면전에서 직접 들으면 기분이 새삼스럽다. 그 뜻을 곱씹어 보게 된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더욱 땀 흘려 일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대개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했다. '불한당(不汗黨)'은 '땀 흘리지 않는 무리'라는 뜻이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남의 재물만 탐하는 사기꾼이나 건달 무리를 지칭한다. 사리에 맞게 일을 처리하고 땀에 대한 대가 이상을 추구하지 않은 내가 왜 불한당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했다.

구급대원은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병원 이송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 오히려 이송을 거부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 결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응급 신고가 있지 않은 한 비응급환자를 무작정 거부할 수도 없다. 결국 우리는 밤새도록 여러 병원 응급실을 돌며 구급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 아침 10시가 돼서야 상황이 종료되었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왔다. 정신적, 육체적 피로로 몸이 녹아드는 느낌이었다. 내 어두운 얼굴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눈빛은 애써 모른 척 참았다. 그러나 놀아달라는 아이에게 '아빠가 피곤해서 미안해. 조금만 쉬고 놀아줄게'라고 말할 때는 가슴이 아렸다. 조금 자고 일어난 한낮에도 우울하고 몸이 천근만근 피곤했다. 온 세상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듯하다. 나는 왜 소방관이 되겠다고 한 것일까?

법보다 민원이 앞서는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회사 안에도 있었다. 가끔 상급자들이 구급차를 이용해 '퇴근길에 집까지 태워달라', '우리 친척 좀 병원에 데려다주고 진료 마치면 집에도 데려다 달라' 등의 요구를 하곤 했다. 그분들은

‘생면부지의 남도 태워주는데 왜 동료이자 선배들은 왜 태워주지 않느냐’며 아전인수식으로 말했다. 알만한 분들이 하는 말이라 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사사로운 감정에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나와 동료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한 동기가 상급자의 구급차 사적 이용에 연루되어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 친구는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 근무한 모든 이들이 그의 인성에 감탄할 정도였다. 아마도 거절을 못 하는 성격 탓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그르친 것 같았다.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실한 신입 소방관에게 징계 기록이 남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양심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경계가 흐릿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간의 선행은 무시되고 징계라는 결과로 마무리되는 것이 너무나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익숙하게 느꼈던 모든 것들이 어렵고 막막해졌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처럼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듯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애초에 구급대로 발령받은 것부터 의문이 들었다. 뺑이 없어서 힘든 보직으로 발령받은 것일까? 소위 말하는 사바사바를 못 해서 험한 일만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구급대원들만 새벽에 취객들을 태우고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인가? 불만을 넘어서 피해의식이 생겼다. 피해의식은 우울감으로 바뀌었고 급기야 일에 대한 시선도 달라졌다.

‘힘든 일하는 구급대니까 이런 행정적인 업무는 조금 덜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안일한 생각을 속으로 품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입 밖으로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현장을 하나도 모르는 내근직(현장 출동이 아닌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뭘 알겠어? 출동이 많은 구급대야말로 소방 조직을 지탱하지’라며 배타적인 생각도 했다. 열심히 하려는 후배들에게는 ‘뭘 그렇게까지 하나? 어차피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필요 이상으로 잘하면 계속 구급대에서 썩으며 고생할 거다’라며 기를 꺾기도 했다. 신입 소방관의 포부는 까맣게 잊고, 업무를 슬금슬금 피하며 민원인들에게 소극적으로 대했다. 성격도 가시 돋친 선인장처럼 변했다. 너는 매일 말싸움하려고 출근하냐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집으로부터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전화가 걸려 왔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발생했을 때의 삼엄한 분위기를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창궐 극초기 중국 도시가 폐쇄되고 격리된 병원에서 집단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전 국민이 공포에 떨던 때였다. 구급대원인 나조차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지만, 갓 나온 대응 매뉴얼을 잘 숙지한 다른 대원들이 감염보호복을 입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할머니를 안전하게 이송해 주었다.

85세 할머니는 대구에서 충북의료원까지 이송되었다. 4주간 격리된 후 퇴원하면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다. 119 신고부터 이송, 입원, 퇴원까지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잘해서 보기 예뻐다고 연신 감탄하셨다. 코로나 초기의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방, 의료 관계자들의 대응은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훌륭했다.

반면, 나는 너무나 부끄러웠다. 배움을 게을리하였기에 어려운 일을 두려워했다. 연차가 쌓이며 임기응변만 늘어나면서 그런 잔재주를 경험이라고 포장했다. 동료의 땀 흘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는 못난 동료였다.

만약 동료의 가족이 아플 때, 나 같은 사람이 구급대원으로 출동한다면 그 동료는 나를 원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잘했다며 자처하던 출동들도 조금 더 잘했으면 환자들의 예후가 더 나았을 것이라고 반성했다. 이 모든 사실을 내 가족이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사실도 부끄러웠다. 고인 물처럼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내 자신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해지며 부끄러웠다.

취객에게 ‘불한당’ 소리를 들으며 억울해하던 내가 어느새 진짜 불한당이 되어 있었다. 공직자가 땀 흘려 성실히 일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취하는 것도 광의의 부패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뇌물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사전적 의미의 청렴만을 청렴으로 알고 청렴 흉내를 내고 있었다. 땀 이상의 대가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라며 주변에 부정적인 냉소만 퍼뜨렸다.

만약 우리 사회에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라는 안일주의가 팽배했다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냉소만 가득했을 것이다. 생면부지의 타인들이 합심할 수 있는 것은 각자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한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빅 브라더 없이도 옳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정교한 신뢰 기반 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한 사고방식은 서로가 서로에게 최소가 아닌 최선의 선의를 베푸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는 솔선수범을 보여 신뢰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공직자가 힘들고 불편해야 국민이 편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말은 여름에 에어컨 끄고, 겨울에 보일러 켜지 않는 소극적 청빈함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직자가 본인의 이익을 주장하기 전에 더 큰 맥락에서 국익을 보살피는 청렴한 사고방식도 포함한다. 공직사회는 국민의 신뢰 없이 한순간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의 청렴은 적극적으로 진화해야 한다.

국군대전병원 이국종 원장은 그의 저서 『골든아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 특별한 일 한 것 없습니다. 내 업의 본질이 요구한 게 그거라서 그걸 다 했더니 사람들이 저럽니다.” 그가 말하는 직업의식은 특별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업이 요구하는 본질에 충실한 것이다. 예전에는 이 말을 공허하게 느꼈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개인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책에도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부분이 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잘 자는 사람들의 책상에서 결정되는 정책에 따라 24시간 쉼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생사여탈이 결정되는 현실에 신물이 났다.” 현실에 신물이 난 의사는 어떻게 강한 책임을 기꺼이 질 수 있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을까? 이국종 원장의 멘토인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길바닥에서 일하다 파편처럼 흩어져야 한다. 네 주제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 정도 임팩트를 낸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라” 그의 남다른 직업의식은 현실을 절망하기보다 긍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팔짱 낀 채 '구조적인 문제' 운운하며 똑똑한 척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진짜 용기는 한계를 긍정하고 일부라도 바꾸기 위해 작은 시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냉소보다 낙관주의가 고차원의 경지라는 것은 어느 팝송에서도 들은 적 있다. “냉소적으로 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Anyone can be cynical. 담대하게 낙관주의자가 되라구 Dare to be an optimist.”

물론 낙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잘해야 한다. 노력은 당연하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사회 시스템 같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진솔한 자기 고백으로써 말이다. 나는 소박하게 살아가되, 우리 사회를 자기 힘닿는 범위에서 주저 없이 참여하는 이들이 이끄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그곳에는 불한당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매일 밤 강변을 뛰면서 생각한다. 저 촘촘히 빛나는 강물이 잿빛으로 보였던 것은 나의 편견 때문이리라. 내일은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땀 흘릴 것을 다짐한다. 내가 먼저 보인 선의가 사회 전체로 선순환하여 강물 가득한 윤슬처럼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란다.